

“設計엔지니어”의 氣分으로 會議도 企劃 外國 參加者들로부터 찬사와 감사에 보람

國際會議의 主權에 따르는 過程을 原子力發電所의 建設 課程에 비유한다면 너무 엉뚱한 表現일까? 日程樹立 등 基本計劃은 概念設計, 細部프로 그램과 시나리오를 作成하고 參加자를 選定하는 일 등은 詳細設計, 各種 準備物을 製作하고 會議場을 꾸미는 일은 製作 및 施工, 豫行練習을 하는 것은 試運轉 그리고 會議를 進行하는 것은 商業稼動의 過程에 各各 該當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것은 發電所의 稼動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停止시켜 補修를 할 수 있지만 國際會議는 일단 開會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機會에 會議企劃班長의 責任을 遂行하면서 設計士의 氣分 비슷한 것을 만끽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매년 개최되어 주로 WEC의 運營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IEC會議는, 3년 간격으로 수천명이 모여 축제분위기 속에서 各種 專門的인 發表를 하는 總會에 比하여, 단조롭고 흥미를 끌기 힘들다는 문제점의 해결을 행사기획의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서울 회의를 통한 IEC 회



권 이 영
회의기획반장

의 격상”을 모토로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하여 첫째, 참가자들의 격을 높이고 둘째, 주최측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Korean Energy Day” 행사의 내용을 다채롭고 충실하게 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參席者들의 격을 높이는 것은 動力資源부와 몇몇 會員社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담당 長官 다섯명을 포함하여 수교국과 미수교국으로부터 다수의 高位層 人士들이 참석하게 되어 만족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본다. “Korean Energy Day” 행사는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으로서, 主權側의 好意와 歡迎의 뜻이 최대한으로 전달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의 에너지 現況과 政策은 물론

韓國 發展相의 전반에 대하여 좋은 印象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였다.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소개하는 動資部 次官의 基調演說을 위시하여 에너지의 분야별로 現況과 展望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에너지 분야별 弘報冊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한국의 에너지 現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展示會도 열었다. 또한 WEC 總裁와 불가리아 에너지 장관을 비롯한 外國의 著名한 에너지 관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特別講演會도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날 행사의 比重을 재확인 하여주는 의미로서 動力資源部 長官이 주최하는 성대한 리셉션으로 “Korean Energy Day”의 휘나레 겸 IEC본회의의 前夜祭로 삼았다. 이 모든 것들이 時間에 있어서나 內容에 있어 프로그램의 항목 하나 하나가 意圖된 대로 進行되어 제시간에 完了될 때 마다 안도감과 희열을 느낀것은 주최측 모두의 입장이었으리라.

이제 2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行事は 成功的으로 끝났다. 國內에서는 期待 이상으로 행사가 잘 치루어졌고 意義도 컸던 우리 에너지계의 慶事였다

실무반 분장 업무

고 칭찬을 듣고 있으며, WEC 본부를 비롯한 外國人參加者 들로부터는 異口同聲으로 IEC 회의 歷史上 最上의 행사였다는 讚辭와 感謝를 표시하는 서한들이 계속하여 접수되고 있다. 우리 에너지界 모두를 위하여 多幸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萬事는 企劃만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기획한 바가 現實이 되어야 비로서 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企劃班이 작성한 設計圖(?) 이상으로 훌륭한 제작과 시공과 稼動(?)을 하여 준 여러분께 讚辭와 感謝를 드린다. 또한 나와 함께 不撤晝夜 苦樂을 함께한 會議企劃班 同志들과, 끝으로 봉급자로서는 거금을 투자하여 구입하느라고 망설임도 있었지만, 基本 및 세부계획서 作成, 프로그래프와 進行시나리오 작성, 各種 통신문과 과의숙제로 조금은 귀찮게 끼어들던 英文 Speech writing 등에서 부터 行事結果報告書와 지금 이 會議報원고의 作成에 이르기까지 나의 忠誠스러운 同伴者가 되어준 이 携帶用 워드프로세서 (Reporter)에게 감사한다.

실 무 반	분 장 업 무
會議企劃班	會議企劃 및 進行業務 수행
編 輯 班	行事に 필요한 각종 자료 발간
弘 報 班	國內·外 弘報活動, 弘報資料, 보도자료 작성배포, 寫眞, VIDEO촬영, 기자실운영
展 示 班	韓國에너지展示場 設計, 製作 및 운영
宴 會 班	리셉션, 午餐, 만찬 및 이에 수반되는 行事와 기타 宴會 準備
儀 典 班	出入國 管理業務와 VIP 選定 및 일정 管理業務 수행
登 錄 班	IEC大會 및 각종 行事 參加者 등록 신청서 접수 처리
會議長準備班	會議長, 會議附帶施設, 장비, 물품, 각종 표지물 準備
通 譯 班	會議準備 및 進行에 필요한 通譯 및 번역 업무 수행
輸 送 班	會議參加者 入·出國, 行事場 移動, 儀典 用車輛 지원 관리
産業視察班	産業視察 및 동반자 行事 업무 수행
總 括 班	總務, 經理, 각종 購買業務와 小요인력 確保 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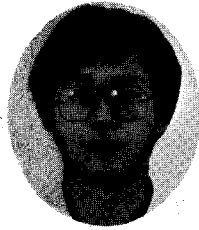
WEC-IEC會議의 얼굴 역할 다해

비중큰 大會 成功的으로 끝난 안도의 기쁨

1987년 4월초, 한국에너지협의회에 파견 나와보니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의전반장이라는 막중한 직함. 어떤 회의에서도 그 회의의 얼굴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나에게 맡겨준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했다.

그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어난 몇가지 일을 회상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해야 될 일은 참가의사를 가진 모든 회원국들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러나 회원국중에는 공산국가를 포함하여 미수교국이 6개국이나 있었으니 입국사증 해결문제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부딪힌 일은 미수교국이 아닌 이스라엘 대표단의 사증 발급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요청이었다. 별 문제 없으리라는 우리측의 답신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체류하는 중에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계속되는 텔렉스에 고민하다가 통역반을 맡고 있던 서은수 과장과 영국공관의 협조를 얻어 성공했던 일이다. 이어서 계속되는 남아연방공화국, 중공, 소련, 동독등의 사



류 경 영
의전반장

증관련 협조요청에 고심하다가 결국 김포공항 현장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타결을 보기도 했다.

행사도중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공항대리수속중 IEC의장인 J. Foster씨의 수하물이 바뀌었던 일이다. 9월13일 가나 차관을 영접하고 호텔에 돌아왔을 때 Foster씨의 전속요원인 정형민씨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사연인즉 호텔에 도착해 보니 Foster씨의 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공항과 계속 연락해서 짐을 찾아 호텔에 도착시켰을 때는 밤 12시 30분이었다. 당일날 짐을 못 찾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회의를 망친다는 사명감하에 기필코 짐을 찾아낸 정형민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난일을 돌이켜 볼때 여

러가지 에피소드 및 조직위원회 내에서의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만 모든 상념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 아득하게 멀어져 가버린 것 같고 남는 것은 “아! 드디어 대과없이 끝났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뿐이다. 그래도 한가닥 정신을 차려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이번 WEC-IEC회의는 참가인원면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 구성인원면을 볼때는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회의로 판단되며 이러한 회의가 큰 실수없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조직위원회의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졌고 또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그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 했음을 의미한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말은 바 책임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전반 실무요원들이 모두 합심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조직위원회가 해체된 후에도 한국에너지협의회에 무한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만 맺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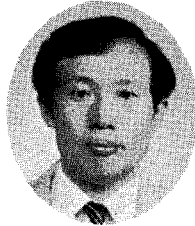
땀흘리고 심혈 쏟은 會議場 준비

大會場이 환상적이란 評듣고 흐뭇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가 계속되는 기간에 열린 '87
IEC 대회는 준비기간 동안 땀
흘리고 심혈을 쏟은 만큼 그결
과는 만족스러웠다. 회의준비
는 완벽에 가까왔으며 회의진
행도 물 흐르듯 부드럽게 진행
되었다.

회의장준비반의 업무는 회의
장 확보, 좌석배치, 회의 장비
확보 및 각종 준비물을 제작,
설치하는 일로서 세밀한곳까
지 신경을 써야할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고 몸으로 직접 뛰어
야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환영하지 않는 업무이
었으나 신께서 내게 주신 좋은
기회로 알고 소홀히 하기 쉬운
안내표지판 등에도 정성을 다
해 만들었다. 또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 초를
나누는 세밀한 행사 진행 계획
을 수립하였고 실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자 수차
례에 걸쳐 예행연습까지도 하
였다.

회의준비 관련 모든 제작물
은 준비단계에서 부터 통일된
색채와 디자인으로 조화시키고
「87 국제집행이사회 본회의장
(쉐라톤워커히호텔 무궁화 그



이 병 식
회의장 준비반장

랜드 볼룸)은 짜임새 있고 아
름답게 꾸몄다.

긴장과 초조 속에서 며칠 밤
을 호텔 방에서 지새우며 모든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몸은 만근처럼 무거웠으나 마
음은 가을하늘 만큼이나 맑아
지고 있었다.

폐회후 텅 빈 회의장에서 못
내 아쉬워 홀로 서있으니 지난
일들이 멀티비전 화면처럼 스
쳐 지나가고 있었다. 유치원 다
니는 아들놈한테 들키면 혼난
다고 엄살부리던 반원을 달래
어 글자 하나 하나 색종이로
오려붙인 표지판들, 밤 깊어
가는 줄 모르며 본 회의장내
에 설치한 카네파 대회로고,
수시로 틈만 나면 점검했던
회의장비들, 수차례 견본 제작
끝에 만든 IEC 본회의용 명패
(WEC 사무국에서 정식 구매
해 감), 회의장이 환상적이라

고 말하던 WEC 사무국의
HAMMET양의 얼굴이 노오란
국화 화분 더미 위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나라로 볼때 88올림픽을
앞두고 WEC-IEC대회가 성
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이며 이러
한 대회준비에 참여한 것은 나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
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조용히
지나온 일들을 반성하면서 이
회의를 위해 음과 양으로 애쓰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회의장비 점검이 "피를
말리는 일" 이라고 하던 음향
실 기사와 반장을 따라 끝까지
열심히 일해준 회의장준비반
원에게 감사하고 싶다.

또한 회의준비에 있어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에
너지 관련기관 여러분과 이번
세계에너지회의 '87국제집행이
사회를 주관 운영한 에너지 협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
무국 요원들과 지금은 복귀되
어 각자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
지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눴던 파견요원들에게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건승을 빈다.

高度의 専門性과 言語文化 수준을 가름하는 일 반원모두 “단호한 결심이 깨졌기에” 成功

'87WEC-IEC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년이상 파견나와 회의준비에 관계하였던 한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가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로부터 찬사를 들으며 끝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실제로 조직위원회의 각 실무반이 편성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전부터 회의 준비에 임하였던 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었고 미력하지만 최선을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그 진행과 결과에 무척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계 75개 회원국중 44개 회원국 대표와 9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 참가자들의 입과 귀 그리고 때때로 눈이 되 주어야 하는 통역반의 임무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일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 수준이 가름되는 일이었음으로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많은 정성을 기울이며 노력하였다. 아직 부족한 사람의 소치일런지는 모르겠으나 동시통역에서나 각종 번역업무에서 모든 일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서 은 수
통·번역반장

WEC의 공용언어가 영어와 불어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영·불 동시통역이 필요하였으며 한국내에서 영·불 동시통역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WEC본부가 AIIC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etes de Conference) 통역사의 동시통역을 회의 주최국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기에 적절한 소요인력을 산정하고 우수한 통역사를 확보하기 위해 회의 개시 일년 반 전부터 AIIC 수석통역사 Dr. K. Dejean과 교섭을 착수하고 긴 협의와 절충을 거쳐 AIIC회원인 Mrs Salma Tejpar-Dang (태국 방콕 거주) Mr. Robin Setton (홍콩 거주) 그리고 Freelancer인 Miss Patricia Werk (국내 外大 통역대학원 강사)과 동시통역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Dr. Dejean과 협의과정에서 당초 Dr. Dejean이 제시하였던 6~7명의 동시통역사의 수를 3명으로 조정하고서도 회의에 필요한 동시통역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인원 축소조정에 따라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회의시작 전에도 여러가지 번역업무가 많아 힘이 들었지만 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회의 기간중 필요한 연설문의 원고가 밤 늦게 도착하여 철야로 번역업무에 임하는 것이었다. 꼭두 새벽부터 파김치가 되도록 뛰어 다닌 뒤인, 밤 9시경에 도착한 원고를 번역하여 익일 아침 회의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경황 속에서도 업무 폭주로 동력자원부 장관 주취리셉션에 초청되어 참석 중인 Alstom Export사의 Dr. Delage를 마시고 있던 와인과 함께 모셔다가 교정을 부탁했던 일, 교정 작업중 시간 절약을 위해 필요한 글자를 폐기된 다른 원고에서 오려다 붙인다는 것이 인쇄에 들어갈 원고에 오려다 붙여 오히려 시간만 낭비

한 일, 밤 12시가 넘어 불가리아 참가자가 사무국으로 찾아와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워커히 호텔은 숙박비용이 비싸 목을 수가 없으니 인근의 값싼 호텔을 소개해 달라고 조르던 일 등은 밤 늦게 일하던 우리들을 실소케 하며 긴장을 풀기도 하였다.

새벽까지 근무하여 모두가 피곤한 상태의 새벽 택시 안에서 내일(사실은 오늘) 만은 일찍 출근하지 못한다는 단호한 결심의 말을 들으면서 귀가하였다가 오늘의 회의 준비와 진행에 걱정을 하며 출근하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미소를 짓고있는 통번역반원들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고맙게 여겨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고 국내외 참석자도 회의준비와 진행을 위해 주야로 동분서주하던 많은 지원 인력도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으로 돌아갔다. 국내외 많은 인사들로부터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찬사를 들으며 축하를 받았을 때는 그간의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 결과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실이며 자신보다는 행사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깰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낸 값진 열매라고 생각한다.

늦게까지 일하다가도 다음날 아침 일찍이 먼저 나와 일을 준비하여 주던 김미란씨 그리고 박정근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전문 동시통역사

성명	국적	거주지	언어	비고
Mrs. Salma TEJPAN-DAN	케냐	태국	영·불	AIIC소속 (Team Head)
Mr. Robin SETTON	영국	홍콩	영·불	AIIC소속
Miss Patricia WERK	프랑스	한국	영·불	Freelancer
윤정은	한국	한국	한·불	외대 통역대학원
이화신	한국	한국	한·영	외대 통역대학원

전문 번역사

업무구분	소속	성명	번역어	비고
상근	한국에너지협의회	김미란	한국어·영어 불어	촉탁
비상근	외국어대 통역대학원	Patricia WERK	영어·일어	